



■ 제3대 金楠이사장 취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3월30일 공단 회의실에서 본부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金楠 이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金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공원관리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온몸으로 느끼고 약동하는 신한국 건설에 발맞추어 깨끗하고 조용하며, 아름다운 공원으로 온국민 모두의 안락한 휴식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친절과 깨끗한 공원을 가꾸어 국민욕구에 부응하며, 충분한 편익시설의 확충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것을 당부하고 공단발전 에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희망찬 꿈을 안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말하였다.

신임 金이사장은 서울 출신으로 단국대 정치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대통령 비서관, 미주동아일보사장·회장을 거쳐 1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 92년도 결산 및 93년도 사업계획 이사회서 결정

지난 3월26일 오후 3시부터 공단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92년도 회계결산 및 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업계획의 기본목표

- 공원자원 보호와 이용·개발의 조화
- 공원환경 및 탐방여건의 조성
- 공원관리재원의 안정적 확보
- 공원관리체제 개선 및 전문성 고양

사업추진 계획

- 무공해 탐방운동 전개
- 탐방문화 선진화 유도
- 탐방편의시설 확충
- 민간단체 참여확대로 공감대 형성
- 전문적 공원관리 체제 구축

■ 3급 승진시험 실시

공단은 지난 3월22일 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3급 승진시험이 있었는데 최종 9명이 합격되었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갑동(운영부), 이상배(관리부), 신용석·정현경(속리산), 안시영(내장산남부), 윤시묵(가야산), 여운석(태안해안), 엄일섭(소백산남부), 이영석(월출산)

■ 북한산서 식목일행사 가저

4월5일 식목일을 맞아 金楠이사장을 비롯한 본부 임직원 및 북한산동부관리사무소 직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한산국립공원 정릉지구에서 식목일행사를 가졌는데 이날 잣나무 1,000본, 단풍나무 200본 등을 식재하였다.

■ 공원관리사무소장 회의

공단은 4월8일 오전 10시부터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본부 과장급이상 임직원과 23개 관리사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장회의를 개최하고 각부·실별 업무실적 및 계획을 토의했다.

■ 金泳三大통령 격려 전화

김영삼 대통령은 4월10일 취임후 처음 강원도를 방문하여 도정과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도지사비서실에서 설악산 대청봉에 전화를 걸어 잠시 통화했다. 김대통령은 대청봉에 근무하는 김청환씨에게 5년전 음력 그믐날밤 그곳에서 숙박한 일을 상기시키며 「고생이 많다, 수고 많이 해달라」고 격려, 이를 전해들은 공단임직원은 사기가 고양되어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보다 적극적인 공원관리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분위기.

효율적인 관리위해 재정적 뒷받침 필요

金楠理事長 本誌와의 특별인터뷰에서 強調
친절봉사와 공단직원 사기진작에도 힘쓸터



우선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후 국립공원 14군데를 강행군하여 다녀오셨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본 결과 겉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것 같으나 속이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속이 비었다는 것은 내부 문제(예산, 관리, 시설 등)가 누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입장료에 운영을 의존해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관리가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이사장께서 그리시는 국립공원상은 어떤 것입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자원으로서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조심스러운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국립공원이라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이 갖춘 자연자원은 나라마다 달라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란 말 그대로 동양화와 같은 빼어난 경관이 국립공원의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경관지에 내재되어 있는 생태계도 주요한 자연자원입니다. 따라서 정상정복 위주의 탐방은 어느 시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립공원의 관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신지요?

(편집자주) 지난 3월29일 새로 취임한 관리공단 金楠이사장과 본회 崔鎭燮사무국장과 특별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다.

▲ 국립공원의 면적이 넓고 지형의 요철이 심하고 산림이 우거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용자의 참여없이 공원관리청만의 관리로는 “보전·보호와 조식스런 이용”이 거의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국립공원 내에서의 행동규범이 각급학교 교육과 시민계몽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생활화 되고 자연을 벗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국립공원에 걸맞는 휴식공간을 조속히 갖추어 이용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물론 산악전문인들의 자문도 구하고, 의논도 하여 실행할 방침입니다.

-관리공단 예산이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각종 수익사업에 매달리다보니 관리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는 일선직원들의 하소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립공원의 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법률이 정한 원칙을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 해에 38억을 지원받고 있는데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가재정과 투자 우선순위가 있는 만큼 국고에만 100% 의존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본연의 업무가 지장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익활동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국립공원과 한국의 국립공원실태를 탐방객의 입장에서 비교해 보신다면?

▲ 미국의 국립공원은 워낙 방대해 거기에 우리 국립공원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 육상면적을 모두 합쳐봐야 미국 옐로우스톤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정공원을 두고 볼 때

우리는 거의 매주·매일이라도 이용할 수 있으나 미국인들은 평생 몇번 탐방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국립공원 이외에 충분한 자연휴식공간이 많아 이를 생활의 일부로 즐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비교는 곤란하고 국립공원제도를 창시한 미국인만큼 공원관리상 본받을 점도 많으며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수준이 부럽습니다.

-국내외 명산중 올라가 보신 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 등산 형식으로 올라가 본 산은 별로 없습니다. 한가지 우리들 모두가 이해해야 할 점은 국립공원이 등산의 대상지로만 쫓점을 맞추는 것도 한번쯤 다시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만일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는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앞으로 재임기간동안 꼭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 우리나라만의 특징있는 국립공원으로 관리하여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곳으로 정착시켰으면 합니다. 동시에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것과 안정적 재정확보, 남모르게 고생이 많은 우리 직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에 공지를 심어주고 매년 30명정도 선발해서 해외 선진국의 국립공원을 실제로 답사하게 하여 견문을 넓히고 능력을 계발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며 그러기 위해서 전직원을 홍보요원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國立公園誌를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 관리공단 인사발령(93년 4월27일자) ●

▲ 운영부장 정권섭(지리산남부소장) ▲ 관리부장 박만철(지리산동부 관리소장) ▲ 시설부장 정유희(북한산동부 관리소장) ▲ 속리산 관리소장 신흥진(관리부장) ▲ 북한산동부 관리소장 이고봉(시설부

장) ▲ 지리산남부 관리소장 황한수(기획과장) ▲ 지리산동부 관리소장 김재만(시설2과장) ▲ 비서실장 최봉석(감사실) ▲ 북한산동부 관리소 과장 박형규(비서실)